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만족도*

A Study on the Adolescents' School Life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계선자 · 이정우 · 김명자 · 박미석
박사과정 유을용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Kye, Sun Ja · Lee, Jeong Woo · Kim, Myung Cha · Park, Mee Sok
Doctoral Student : Yoo, Eul Y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tudy load, peer relationships, school violence and their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ts purpose was not only to identify and describe their overall school life, but most importantly, to provide baseline data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s that shall improve the level of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e analysis of data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1. Adolescents felt highly stressed by their studies. The mean score was 3.40 out of 5 points.
2. Adolescents were highly intimate and relatively low confident with their friends, 4.28 and 3.82 respectively.
3. Approximately half of the respondents(45.4%) had an experience of making their classmates feel "exclusive". In connection, 29% had been involved in school violence.
4. The mean score of adolescents' level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as 2.33. The results of the study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본 연구는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V)'의 1차 연도 연구인 '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및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의 일부임.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연구목적은 숙명여대 홈페이지(www.sookmyung.ac.kr)의 BK21을 참고하기 바람.

also revealed that students in the rural areas are more satisfied with their school life than in Seoul area. Similarly, those in vocational schools are more satisfied than those in regular schools.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학교생활만족도(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 서론

학교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의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이나 지식과 인격을 겸한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조직체로 학교교육의 본질적 기능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교육기능과 기존의 문화유산을 전달하고 습득시킴으로써 새로운 생활방식을 익히게 하는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활동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공간으로 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부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됨에 따라 학교의 규모가 커지고 보다 조직화되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수단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학교조직은 점차 관료화되고 형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조직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는 오늘날 학교교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역기능을 야기 시켰으며 특히 입시 위주 교육과 연계됨으로써 진학하기 위한 통과례로 제도화된 학교 내에 수용된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생활의식'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70% 이상이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형식의 이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1.9%가 '흥미 없고 적성에 맞지 않은 수업'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응답하였으며, '엄격하고 불합리한 학교규칙', '수준에 맞지 않은 수업내용', '학생들간의 살벌한 경쟁', '선생님의 체벌', '학생들간의 폭력',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의 순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국민일보, 1997년 1월 16일자).

한편 1997년 현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

1000여명 중 10~15%가 청소년 폭력에 의해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으며(여성신문, 1998년 3월 17일자), 과중한 학업부담감 문제, 또래집단에서의 부적응 문제, 집단따돌림의 경험 등도 청소년 비행 및 자살의 동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적절한 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10대 미혼모 증가 등도 청소년 문제를 벗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업문제, 교우관계, 이성교제,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 등의 제 영역에서 일부분의 영역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구본용, 1997; 김경신, 1994; 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Saner & Ellickson, 1996),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고찰함에 있어서 그들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학업부담감, 또래집단·이성교제·집단따돌림을 포함하는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폭력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진단하고 미래 향상된 학교생활만족도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실태

1) 학업부담감

청소년들은 신분이 주로 학생인 만큼 학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학업의 결과는 자신감이나 긍정적 자아개념형성에 그리고 미래의 직업선택이나 인생설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와 성적이고 그 다음이 진학과 진로문제이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우리 나라 학생들은 과열 입시의 열풍이 중학교나 초등학교까지 파급되고 있어 장차 입시전쟁에 참전할 전투력 배양에 여념이 없다. 학교에서는 빈번한 시험과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학원수강이나 개인지도, 그룹지도 등을 통해 과외공부를 하고 주말도 방학도 없이 오로지 입시공부에만 매달려야만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은 '공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청소년문제의 핵심은 범죄나 비행이 아니라 바로 '공부'라고 지적하기도 한다(김계현, 1993).

대입 수험생가족의 전반적 현황 및 문제에 대하여 연구한 김명자(1994)에 의하면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욕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대학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청소년의 학업 및 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 사회의 입시과열 현상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의 지출비목 중 교육비가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갖게 하는 지출비목으로 나타났다. 김민정(1995)의 연구에서도 가계의 수요가 한창 증가추세를 보이는 자녀교육이나 진수기에는 가계수요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 복지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자녀가 중·고등학교 시기의 가계가 가장 취약하며 주관적 경제복지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시행된 학생 생활·의식 실태조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량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업량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43.9%가 학습량이 대체로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하여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

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58.5%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공부스트레스에 대해 46.2%가 대체로 많이 받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하여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다 더 많이 받고 있음이 밝혀졌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2) 교우관계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가 그들의 교우관계라 할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또래관계의 확장이다. 청소년기동안 친구를 사귀고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래관계의 중요한 특성은 개인의 자기존중감과 자기가치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지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업에서 그 성취도가 높아 긍정적인 자존감과 가치감을 갖게되며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고독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다(McGuire & Weisz, 1982). 이와 반대로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적이거나 적절한 관계형성 능력이 결여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고 심지어 비행이나 정신질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문형춘, 199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사귀고 있는 친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76.5%),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이희연(1994)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친구에 대한 높은 친밀도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친구관계 및 친밀도는 청소년의 자존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백경임과 서동인(1993)은 친구관계가 사회·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중요한 기능적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소년기는 성적 잠재기인 아동기로부터 벗어나 제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로 이때부터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성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이성교제를 원하게 되고 성충동과 성적 갈등으로 고민하게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83)은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귀를 통해 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질을 터득하게 되고 이성의식을 이해하여 이성을 사랑하는 밝은 감성을 알게 하며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여 상호보완, 협력하는 관계를 배우고 남녀관계의 필연성과 사귀의 방법을 터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최신태(1983)은 결혼전의 성행위 통계의 문제, 학업 지장의 문제, 그리고 이성교제에서는 경쟁적 요소가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문제 등 청소년기 이성교제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45.5%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고생과 실업고생의 이성교제비율을 비교해 보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인문고생은 40.3%, 실업고생은 53.5%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 생식능력과 출산능력을 갖게되고 성적 호기심 또는 성적 충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사회전반적으로 성개방 풍조의 확산과 성관련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성적 자극을 접하게 된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계획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성희, 1992).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연구할 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 중 하나가 집단따돌림 현상이다. 집단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 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로 지칭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결국 다수로 구성된 집단이 소수의 집단원 혹은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소외시키는 현상으로 예를 들어 특정인과 '대화 거부하기',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포함하기',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하는 일마다 시비 걸기', '따돌림의 대상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그와 가깝게 지내려는 다른 구성원에게 위해하기', '바보 만들기' 등의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김용태·박한샘, 1997).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학급당 1~2명 정도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큰 문제는 전체의 76.5%의 학생이 자기주위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어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7). 구본용(1997)은 원만한 인간관계형성을 저해하는 따돌림 현상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이 그저 청소년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또래관계의 한 유형으로만은 볼 수 없을 것이라 밝혔으며, 김용태·박한샘(1997)은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은 피해 학생들의 학업부진, 등교거부는 물론 학생들의 심각한 심리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지도를 요청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3) 학교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1998)에 의하면 청소년 폭력이란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득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청소년 폭력의 주요장소이며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기본장소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사소한 이유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예방이나 대책수립을 더욱 어렵

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우리 나라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에서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13.4%, 학교폭력에 대해 공포를 느낀 학생이 2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박영관, 1996).

한편 Olweus(1996)는 청소년 폭력의 유형에는 위협, 조롱, 때림, 발로 찌기, 꼬집음, 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김준호(1989)는 패싸움, 폭행, 금품갈취, 흥기소지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고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폭행, 금품갈취, 흥기소지, 패싸움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같은 반, 같은 학교, 교내 상급생과 같은 학교 내에 있는 사람에게 당하는 비율이 조사대상자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숫자에 있어서도 2명 이상의 집단을 이루는 경우가 19.9%로 가해자의 집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여성신문, 1998년 3월 17일자).

고등학교의 계열별 폭력 실태를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은 65%, 폭력을 당한 피해경험은 전체의 44%로 가해 경험보다 다소 적은 비율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실제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의 빈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을 당한 후의 행동을 볼 때 폭력 피해를 당했던 청소년 중 53.9%가 폭력 피해 여부를 신고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46.1%만이 폭력피해 여부를 이야기 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해여부를 주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2. 학교생활만족도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인 조건이나 학교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1999년 교육청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중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상담요청이 전체의 3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0년 3월 13일자).

황진숙(1995)은 학교환경, 학교행사, 수업과 학습, 인간관계, 학급분위기,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6가지 요인으로 연구한 반면 홍문균(1996)은 학교생활만족도의 요인을 갈등요인으로서 대신 언급하였는데 그 요인으로 교사요인, 급우요인, 이성요인, 진로요인, 학업요인, 교칙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은 구성원에게 교육의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대부분의 학교는 시설의 노후화,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은 피폐된 교육환경을 대변해 주고 있다(한준상, 1996). 학교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의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교실환경에 매우 만족한 학생은 16.7%에 지나지 않은 반면 교실환경에 불만을 표시한 학생은 20.1%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체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실환경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생들로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4.6%인데 비해 불만스럽다는 응답이 38.7%로 훨씬 많았다.

한편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교사는 학생과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생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적이고 자유로운 인간관계이며 또 하나는 학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학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생은 학습에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될 뿐 만 아니라 사회

적 관계에서도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여부는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교생활실태의 영역을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 학업문제(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다 집중적이고 광범위해진 또래집단 문제(Ginsberg, Gottman & Parker, 1986) 그리고 점차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박영관, 1996)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배경변인(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배경변인(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1) 학업부담감 척도

학업부담감은 학업량에 대한 인식, 학업스트레스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경신(1994), 김명자(1994)의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5점의 Likert척도로서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부모의 기대가 과중하다', '학습시간이 너무 많다', '점수로 나의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 부담스럽다', '친구끼리 경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에 가까울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61이다.

2) 교우관계 척도

교우관계로는 친구에 대한 친밀도 및 신뢰도, 이성교제, 집단따돌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구분용(1997), 김용태·박한샘(1993), 백경임·서동인(1993), Gottman(1986)의 척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친구에 대한 친밀도 및 신뢰도의 경우 5점의 Likert척도로서 각각 3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친밀도의 경우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 '친구들과 평생동안 친구가 되고 싶다', '나는 친구들을 매우 좋아한다' 등의 설문으로, 그리고 신뢰도의 경우는 '내 친구들을 신뢰할 수 있다', '내 고민을 친구에게 모두 말할 수 있다', '내 친구들은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것이다' 등의 설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점에 가까울수록 친밀도,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각각 .85, .78이다.

3) 학교폭력 척도

학교폭력의 척도는 학교폭력의 경험유무, 폭력근절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박영관(1996), 이춘화(1995)의 척도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4) 학교생활만족도 척도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을 포함한 수업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 등을 의미하며 홍문균(1996), 황진숙(1995)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즉 '선생님들의 학생지도에 만족한다', '수업내용 및 수업분위기에 만족한다', '정규수업 이외의 특별활동시간에 만족한다', '학교시설환경에 만족한다', '담임선생님을 포함한 교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등의 설문내용으로 5점의 Likert척도로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에 가까울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72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고등학생으로 가장 대표성 있다고 간주되는 집단들을 할당표집 하였다. 추출방법은 집락표집과 비울층화표집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비울층화표집의 경우 모집단은 교육부(1999)의 교육통계연보의 성별(남:여=5:5)과 계열(인문계:실업계=6:4)을 기준으로 각 범주에서 일정수를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강북과 강남을 고려하여 8개 고교를, 중소도시로는 6개 고교를 선정하였으며, 군·읍·면 소재지로는 5개 고교를 선정하여 전국의 총 19개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의 청소년들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1999년 10월 25일에서 10월 31일까지 고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300부를 배부하여 총1196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한 1125부만을 본 연구의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신뢰계수(Cronbach's α)로 검증을 하였으며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 F-test, t-test를 이용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은 성별로 남학생이 50.3%, 여학생이 49.7%로 분포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45.0%, 중소도시가 30.5%, 군·읍·면 소재지가 24.5%로 서울특별시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66.1%, 실업계가 33.9% 로 인문계의 비율이 다소 높게 분포하고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125)

변 인	집 단	빈도(%)
성 별	남	566(50.3)
	여	559(49.7)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506(45.0)
	중소도시	344(30.5)
	군·읍·면	275(24.5)
계 열	인문계	744(66.1)
	실업계	381(33.9)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를 학업부담감, 교우관계, 학교폭력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학업부담감

(1) 학업량에 대한 인식

<표 2>에서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업량에 대한 인식의 조사결과 약59.1%이상의 청소년들이 '매우 과중한 양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과중한 양이다' (24.5%), '적절한 양이다' (10.6%), '부족한 양이다' (5.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약 84%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학업을 매우 과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만을 위한 과도한 학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량에 대한 인식은 성별(p<.01), 거주지역(p<.01), 계열(p<.001)에 의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 그리고 서울특별시 거주 청소년의 경우 '매우 과중한 양이다' 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의 경우 학생수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경쟁이 보다 치열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수업 이외의 과외학습 혹은 학원수강 등의 사례가 보다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청소년

〈표 2〉 학업량에 대한 인식

변 인	구 분	매우 과중한 양이다	과중한 양이다	적절한 양이다	부족한 양이다	계	비 고
성 별	남	301(27.46)	141(12.86)	72(6.57)	36(3.28)	550(50.18)	$x^2=1.32^{**}$ df=3
	여	347(31.66)	126(11.50)	45(4.11)	28(2.55)	546(49.82)	
	계	648(59.12)	267(24.36)	117(10.68)	64(5.84)	1096(1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92(26.81)	111(10.19)	58(5.33)	29(2.66)	490(45)	$x^2=11.54^{**}$ df=6
	중소도시	208(19.10)	87(7.99)	26(2.39)	12(1.10)	333(30.58)	
	군·읍·면	144(13.22)	69(6.34)	32(2.94)	21(1.93)	266(24.43)	
	계	644(59.14)	267(24.52)	116(10.65)	62(5.69)	1089(100)	
계 열	인문계	442(40.55)	184(16.88)	60(5.50)	34(3.12)	720(66.06)	$x^2=18.571^{***}$ df=3
	실업계	204(18.72)	80(7.34)	56(5.14)	30(2.75)	370(33.94)	
	계	646(59.27)	264(24.22)	116(10.64)	64(5.87)	1090(100)	

p<.01 *p<.001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의 경우 실업계 청소년들에 비하여 학업량을 과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문계 청소년일수록 대학진학에의 부담이 보다 크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준길(1987),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1998)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2) 학업스트레스

〈표 3〉에서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업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3.40점으로 비교적 학업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p<.05)과 계열(p<.0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보다는 오히려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이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량에 대한

인식은 서울특별시 소재 청소년들이 더욱 과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학업에서 느끼는 질적인 스트레스는 중소도시 소재 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문계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들에 비하여 대학진학을 보다 많이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진학과 시험이 청년기 남녀의 가장 큰 정신적 스트레스원이라고 밝힌 백기청·홍강의(1987)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교우관계

(1) 친구에 대한 친밀도 및 신뢰도

〈표 4〉에서 친구에 대한 친밀도는 5점 만점에 4.2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에 대한 신뢰도는 이보다 다소 낮은 3.82로 밝혀졌다. 이는 성별(p<.001)과 거주지역(p<.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친구에 대한 친밀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는 남자보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 가치를 두고 이의 관계유지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도중수 외(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이 여학생

〈표 3〉 학업스트레스 (n=1125)

변 인	구 분	학업스트레스		F(t)값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3.43	.71	1.224
	여	3.38	.66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38 B	.72	4.25*
	중소도시	3.49 A	.67	
	군·읍·면	3.33 B	.65	
계 열	인문계	3.47	.69	4.60***
	실업계	3.27	.67	

*p<.05 ***p<.001

<표 4> 친구에 대한 친밀도 및 신뢰도

(n=1125)

변 인	구 분	친밀도		F(t)값	신뢰도		F(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성 별	남	4.21	.72	3.396***	3.72	.85	-4.13***
	여	4.35	.63		3.91	.71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4.34 A	.65	5.44**	3.88 A	.80	4.12***
	중소도시	4.28 A	.70		3.81 AB	.76	
	군·읍·면	4.17 B	.70		3.70 B	.80	
계 열	인문계	4.31	.68	1.457	3.84	.82	1.379
	실업계	4.24	.68		3.77	.72	

p<.01 *p<.001

보다 더 독립적이고 경쟁적으로 사회화되는 까닭으로 입시준비가 심화되는 생활환경에서 남학생에게 미치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군·읍·면 지역 청소년보다 친구에 대한 친밀도를 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친구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 점수가 높았으며 서울특별시 및 중소도시 소재 청소년이 군·읍·면 소재 청소년에 비하여 친구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친구에 대한 친밀도 및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나라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사귀고 있는 친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삼성복지재단(1994), 이희연(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친구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만족도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이 매우 영향 있는 중요한 긍정적 준거집단(positive reference group)임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인주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고 대학입시의 경쟁이 치열한 현 시점에서 그래도 청소년들이 조사결과와 같이 친구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친밀도 및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2) 이성교제

① 이성친구 유무

<표 5>에서 청소년의 이성친구 유무의 조사결과

<표 5> 이성친구 유무

변 인	구 분	있 다	없 다	계	비 고
성 별	남	168(15.23)	388(35.18)	556(50.41)	$\chi^2 = 7.273^*$ df=1
	여	126(11.42)	421(38.17)	547(49.59)	
	계	294(26.65)	809(73.35)	1103(1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35(12.32)	358(32.66)	493(44.98)	$\chi^2 = 0.302$ df=2
	중소도시	86(7.85)	249(22.72)	335(30.57)	
	군·읍·면	72(6.57)	196(17.88)	268(24.45)	
계 열	인문계	186(16.96)	539(49.13)	725(66.09)	$\chi^2 = 1.429$ df=1
	실업계	108(9.85)	264(24.07)	372(33.91)	
	계	294(26.80)	803(73.20)	1097(100)	

*p<.05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전반적으로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은 27.7%, 이성친구가 없는 청소년은 73.2%로 나타나 기성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성교제는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성별(p<.05)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집단에서 이성친구와 사귀고 있는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영희(1992), 이희연(1994)의 연구와 유사하다.

② 성교육에서 원하는 내용

<표 6>에서 청소년들이 성교육에서 원하는 내용의 조사결과 '건전한 성의식 및 성에 대한 태도(66%)', '구체적인 피임방법(15.4%)', '미래 결혼생활을 돕는 내용(9.5%)', '남녀의 신체구조 및 생리적 현상(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 및 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 알고 싶어하였으나, 구체적인 피임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청소년들도 15.4%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볼 때 '남녀의 신체구조 알기'의 내용이 대부분인 기존 성교육 프로그램(Christopher & Roosa, 1990; Green & Sollie, 1989; Melchert & Burnett, 1990)은 더 이상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성교육의 내

용은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영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요구에 적절한 보다 정교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성별(p<.001)과 거주지역(p<.0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여학생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성교육에 있어서 '건전한 성의식 및 성에 대한 태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집단따돌림

① 집단따돌림의 가해 경험 유무

<표 7>에서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조사결과 45.4%의 청소년들이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따돌림은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거주지역(p<.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서울특별시 소재 청소년이 보다 높은 집단따돌림의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수로 인한 친구들과의 경쟁심이 강화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현실점에서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 성교육에서 원하는 내용

변인	구분	건전한 성의식 및 성에 대한 태도	남녀의 신체구조 및 생리적 현상	구체적인 피임방법	미래 결혼생활을 돕는 내용	기타	계	비고
성별	남	320(29.30)	53(4.85)	87(7.97)	65(5.93)	20(1.83)	545(49.91)	$\chi^2=37.447^{***}$ df=4
	여	400(36.63)	17(1.56)	81(7.42)	39(3.57)	10(0.92)	547(50.09)	
	계	720(65.93)	70(6.41)	168(15.38)	104(9.52)	30(2.75)	100(1092)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09(28.48)	29(2.67)	88(8.11)	53(4.88)	13(1.20)	492(45.35)	$\chi^2=26.502^{***}$ df=8
	중소도시	217(20.00)	15(1.38)	60(5.53)	32(2.95)	6(0.55)	330(30.41)	
	군·읍·면	191(17.60)	24(2.21)	20(1.84)	18(1.66)	10(0.92)	263(24.24)	
	계	717(66.08)	68(6.27)	168(15.48)	103(9.49)	29(2.67)	100(1085)	
계열	인문계	471(43.37)	46(4.24)	110(10.13)	69(6.35)	20(1.84)	716(65.93)	$\chi^2=0.192$ df=4
	실업계	246(22.65)	23(2.12)	58(5.34)	33(3.04)	10(0.92)	370(34.07)	
	계	717(66.02)	69(6.35)	168(15.47)	102(9.39)	30(2.76)	1086(100)	

***p<.001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표 7> 집단따돌림의 가해 경험 유무

변 인	구 분	있 다	없 다	계	비 고
성 별	남	246(22.34)	307(27.38)	553(50.23)	$\chi^2=0.386$ df=1
	여	254(23.07)	294(26.70)	548(49.77)	
	계	500(45.41)	501(54.59)	1101(1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35(21.43)	259(23.67)	494(45.16)	$\chi^2=11.351^{**}$ df=2
	중소도시	164(14.99)	170(15.54)	334(30.53)	
	군·읍·면	97(8.87)	169(15.45)	266(24.31)	
	계	496(45.34)	598(54.66)	1094(100)	
계 열	인문계	331(30.29)	392(35.80)	723(66.03)	$\chi^2=0.038$ df=1
	실업계	168(15.34)	204(18.63)	372(33.97)	
	계	499(45.57)	596(54.43)	1095(100)	

**p<.01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②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의 행동

<표 8>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보았을 때의 행동을 조사한 결과 59.6%의 청소년들이 '무시한다' 라고 응답한 반면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의논하는 경우는 불과 5.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 드림으로써 친구들로부터 자신 역시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집

단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교사 등 어른들로부터 적절히 보호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의 76.5%에 해당하는 학생이 자기주위에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어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한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다. 배경변인에 의해서는 성별(p<.01)과 거주지역(p<.0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표 8>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의 행동

변 인	구 분	잠자코 있다	부모님, 선생님과 의논한다	동참한다	무시한다	기 타	계	비 고
성 별	남	38(3.52)	33(3.06)	36(3.33)	311(28.80)	125(11.57)	543(50.28)	$\chi^2=14.357^{**}$ df=4
	여	22(2.04)	26(1.48)	16(1.48)	333(30.83)	140(12.96)	537(49.72)	
	계	60(5.56)	59(5.46)	52(4.81)	644(59.63)	265(24.54)	1080(1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8(1.68)	17(1.58)	21(1.96)	323(30.07)	104(9.68)	483(44.97)	$\chi^2=31.229^{***}$ df=8
	중소도시	20(1.86)	23(2.14)	14(1.30)	193(17.91)	78(7.26)	328(30.54)	
	군·읍·면	22(2.05)	19(1.77)	17(1.58)	125(11.64)	80(7.45)	263(24.49)	
	계	60(5.59)	59(5.49)	52(4.84)	641(59.68)	262(24.39)	1074(100)	
계 열	인문계	43(4.00)	37(3.45)	34(3.17)	421(39.20)	173(16.11)	708(65.92)	$\chi^2=1.283$ df=4
	실업계	17(1.58)	22(2.05)	16(1.49)	220(20.48)	91(8.47)	366(34.08)	
	계	60(5.59)	59(5.49)	50(4.66)	641(59.68)	264(24.58)	1074(100)	

p<.01 *p<.001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청소년의 경우 '무시한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

(1)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

<표 9>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29%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는 성별(p<.0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폭력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폭력성향이 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이준형(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2) 폭력근절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표 10>에서 폭력근절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표 9> 학교폭력 피해 경험 유무

변 인	구 분	있 다	없 다	계	비 고
성 별	남	238(22.06)	299(27.71)	537(49.77)	$\chi^2=123.422^{***}$ df=1
	여	74(6.86)	468(43.37)	542(50.23)	
	계	312(28.92)	767(71.08)	1079(1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37(12.78)	347(32.37)	484(45.15)	$\chi^2=1.247$ df=2
	중소도시	92(8.58)	249(22.39)	332(30.97)	
	군·읍·면	81(7.56)	175(16.32)	256(23.88)	
	계	310(28.92)	762(71.08)	1072(100)	
계 열	인문계	211(19.66)	499(46.51)	710(66.17)	$\chi^2=0.699$ df=1
	실업계	99(9.23)	264(24.60)	363(33.83)	
	계	310(28.89)	763(71.11)	1073(100)	

***p<.001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표 10> 폭력근절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변 인	구 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민정신	유해환경근절	방송매체의 상업주의 지양	피해자, 가해자를 모두 수용하는 사회분위기조성	계	비 고
성 별	남	256(23.75)	139(2.89)	40(3.71)	103(9.55)	538(49.91)	$\chi^2=21.733^{***}$ df=3
	여	218(20.22)	109(10.11)	72(6.68)	141(13.08)	540(50.09)	
	계	474(43.97)	248(23.01)	112(10.39)	244(22.63)	1078(100)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00(18.67)	103(9.62)	51(4.76)	126(11.76)	480(44.82)	$\chi^2=13.991^*$ df=6
	중소도시	158(14.75)	67(6.26)	33(3.08)	71(6.63)	329(30.72)	
	군·읍·면	112(10.46)	77(7.19)	27(2.52)	46(4.30)	262(24.46)	
	계	470(43.88)	247(23.06)	111(10.36)	243(22.69)	1071(100)	
계 열	인문계	311(28.98)	174(16.22)	67(6.24)	155(14.45)	707(65.89)	$\chi^2=4.740$ df=3
	실업계	159(14.82)	73(6.80)	45(4.10)	89(8.29)	366(34.11)	
	계	470(43.80)	247(23.02)	112(10.44)	244(22.74)	1073(100)	

*p<.05 ***p<.001

*빈도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고 및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민정신' (44%), '유해환경 근절' (23%), '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싸주고 돌봐주는 사회분위기 조성' (22%), '폭력을 부추키는 언론이나 방송매체의 상업주의의 지양' (10%)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폭력현장을 목격하고도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다거나 혹은 자신이 보복 당할까 외면하는 등의 무관심보다는 이의 현장을 신고한다거나 폭력 행동을 제지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주변의 청소년 폭력에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정비, 유해매체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학교나 지역사회를 안전지대로 만들려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p<.001$)과 거주지역($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남학생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신고 및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민정신'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33점으로 중간이하의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거주지역($p<.001$)과 계열($p<.001$)에 의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11).

<표 11> 학교생활만족도 (n=1125)

변 인	구 분	학교생활만족도		F(t)값
		평균	표준편차	
성 별	남	2.35	.80	1.034
	여	2.30	.78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18B	.77	37.45***
	중소도시	2.28B	.74	
	군·읍·면	2.66A	.79	
계 열	인문계	2.31	.80	-4.329***
	실업계	2.36	.77	

*** $p<.001$

군·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서울특별시나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군·읍·면 지역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수가 적어 학생간의 경쟁도 덜할 것이고 대학입시의 과열 역시 서울특별시나 중소도시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계열에 의해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실업계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시의 부담이 비교적 적은 실업계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고 학업이외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의 공부 혹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함으로 학교생활에도 보다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업계보다 인문계의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홍문균(1996)의 연구 결과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의 조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량에 대한 인식을 볼 때 조사대상 청소년의 59.1%가 '매우 과중한 양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인 입시위주의 강도 높은 공부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들의 적성과 능력에 합당한 전인교육 및 직업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대상의 과반수에 가까운 청소년(45.4%)이 친구를 따돌려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집단따돌림과 같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친구를 집단적으로 매장시키는 악의적 사회성을 키운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현행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의 승자만을 인정해온 우리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집단따돌림현상에 대한 예방 및 그 대책으로 학교에서는 소집단 활동을 통한 특별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과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정체감과 서로에 대한 가치를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째, 29%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신고 및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민정신'(44%) 및 '유해환경 근절'(23%)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음을 볼 때 학교폭력을 더 이상 남의 일로만 간주하여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폭력현장에 대한 신고 및 폭력행동의 제지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며, 사회의 비교육적 환경의 정비와 학교주변의 향락·유해환경의 퇴폐성 단속에 관한 사회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 전반에 대해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해 도덕성을 높임으로써 청소년들이 폭력 사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지나친 체벌을 자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가치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교사들은 학생들을 진정한 인간관계로 대하고 학생들간의 친교관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네째, 학교생활만족도를 볼 때 군·읍·면 거주하는 청소년과 실업계 청소년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리고 인문계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모두 입시입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말미암아 입시열이 보다 과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청소년과 인문계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보다 흥미를 잃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시를 위한 교과과정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전인교육으로의 교육방침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를 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교육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125명이라는 전국적인 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업부담감, 또래집단·이성교제·집단따돌림을 포함하는 교우관계, 그리고 학교폭력의 실태를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거주지역, 계열에 따라 모두 분석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변인들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제한점을 기초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관련 변인에 한해서만 분석하였는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학교생활만족도에는 그들의 가족환경 변인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부모의 가치관, 가족분위기 등의 가족환경 변인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학습전략프로그램,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하여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청소년들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고 학교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계현(1993). 교육병의 핵심은 공부. 교육개발, 84, 26~30.
- 김준호, 이동원(1989).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구본용(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 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권이중, 남정길, 차경수, 최충욱, 최운실, 최윤진 (1998). 청소년 교육론. 서울: 양서원.
- 김경신(1994). 대입수험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열과 대학입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명자(1994). 대입수험생 가족의 전반적 현황 및 문제.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문조, 김원동, 서용석, 김혜영(1995). 한국청소년의 의식세계.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김민정(1995). 객관적 가계경제복지와 주관적 가계경제복지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92).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 박한샘(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준호(1989). 학교폭력의 진단과 처방.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도중수, 정문성, 문선희, 김세라, 정수경(1992). 청소년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문형준(1999).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청소년상담연구, 1(1), 41-50.
- 박영관(1996).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임, 서동인(199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5, 45-63.
- 백기창, 홍강의(1987). 스트레스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6, 75-111.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83). 성교육자료. 서울: 농원문화사.
- 삼성복지재단(1994).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 구조-생활설계접근-.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1996). 2020년, 우리 청소년의 모습은?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개원1주년 기념심포지엄자료집.
- 심응철(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2(2), 2-34.
-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준길(1987).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이명숙, 정희옥, 이춘화(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성희(1992).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 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교(1999). 청소년 문제의 새로운 동향과 대책, 뉴 밀레니엄 시대의 건강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방안모색. 서울: 한국가정생활개선 진흥회.
- 이준형(1996).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이춘화(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희연(1994). 청소년 또래문화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 155-173.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청소년 진로상담. 서울: 동방기획.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청소년 학업상담. 서울: 정민사.
- 최신덕(1983). 결혼과 가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학생 생활·의식 실태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서울: 한국소비자 보호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부모가 알아야 할 청소년기. 서울: 서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6). 청소년문제론. 서울: 서원.

- 한준상(1996). 학교스트레스.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황진숙(1995). 교사의 역할에 따라 선호되는 특성과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문균(1996). 고등학교학생의 계열별 학교생활 갈등요인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1999). 교육통계연보.
- 국민일보. '학교 부적응생 크게 늘었다'. 2000년 3월 13일자.
- 국민일보. '중고생 10명중 7명 학교생활 힘들어요' 1997년 1월 16일자.
- 여성신문. '청소년 폭력 학교주변에서 대부분 성행'. 1998년 3월 17일자.
- Christopher, F. S., & Roosa, N. W. (1990). An evaluation of an 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 "Is Just Say No Enoug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39, 68-72.
- Epstein, J. L. (1983). Examining theories of adolescent friendships. In J. L. Epstein & N. L. Karweit (Eds), *Friends in School*. NY: Academic Press.
- Ginsberg, D., Gottman, J., & Parker, J. (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Gottman, J. M., & Parker, J. G. (Eds.), *Conversations of Frien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 S. K., & Sollie, D. L. (1989). Long-term effects of a church-based sex education program on adolescent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38, 152-156.
- McGuire, K. D., & Weisz, J. R. (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3, 1478-1484.
- Melchert, T., & Burnett, K. F. (1990). Attitudes,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of high-risk adolescents: Implication for counseling and sexuality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293-298.
- Olweus, D. 이동진 역(1996).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 서울: 삼신각.
- Saner, H., & Ellickson, P. (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lescence Health*, 19(2), 94-103.